

아동의 또래친밀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능력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ccording to Peer Friendliness

송지혜 · 황혜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Ji Hae Song · Hae Shin Hw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with peer friendliness. Specifically, it examined the hypotheses tha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age, gender, and peer friendliness, and tha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ould affect their social competences. The subjects were 197 of the second, fourth, and sixth grader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angdong-gu, Seou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irls use more 'external response strategy' than boys do. Elder children use more 'internal response strategy' than younger children, and younger children use more 'problem solving strategy' than elder children. Seco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peer friendliness. Children employ more 'problem solving' and 'internal response' strategies to close friends rather than to just friends. Children used more the strategies as 'request for social support', 'evasion', and 'external response' to just friends rather than to close friends. Finally, children's social competencies are influenced by the strategies of 'problem solving' and 'evasion'.

Key Words :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ocial competence, peer friendliness

I. 서론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 사회적 능력은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능력이며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고인숙, 2004).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한 자아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이다(권연희, 2003). 특히 아동기는 사회적 능력 발달의 민감기이며 지금까지의 가족중심적인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시기로, 아동기

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특성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개념화하고 특수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최경순, 1992). 이러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이고 학업성취 가능성 및 사회적 적응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패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부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artup(1991)은 성인기 행복을 예언하는 아동기의 발달요소는 지능, 학교성적, 교실행동이 아니라 사회성임을 강조하면서 아동기에 획득한 사회성의 정도는 장차 그 아동이 성장한 후의 행복과 불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 Corresponding author: Hwang, Hae Shin
Tel: (02) 2287-5346, Fax: (02) 2287-0071
E-mail: hshwang@smu.ac.kr

여러 학자들은 아동기 사회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를 설명하고 예언해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하여 왔다(서은혜, 2005).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대부분의 연구결과(안라리, 2005; 이혜영, 1986; 권연희, 1995)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남아와 여아에게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동의 학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박경원(1986)의 연구결과와 학년차가 나타난 안라리(2005)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의 사회성을 예언하는 요인 중 사회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욕구를 나타내고 의도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정서는 개인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학습되어진다. 정서적 능력을 강조하는 정서 지능에서 중요하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서조절은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다. 여기서 정서조절이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감정적 부적절성이나 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적응성, 상황 적합성 등의 정서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즉, 정서가 조절되는 빈도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서조절 전략은 감정이 자극받는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의 조절을 위해 아동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의도적, 인지적, 행동적인 대처행동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념과 측정은 구별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정서조절 능력을 획득하게 되며, 이렇게 학습되고 조절된 전략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각 상황에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준거와 목적에 맞게 발달시키며 나아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박수현, 2004).

그동안 정서조절 전략이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정운(1994)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연령증가에 따라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실망스러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위장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안라리(2004)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표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정적 표현의 빈도 및 강도가 감소하고 긍정적 표현이 증가하며, 정서 인식이 정교해지고, 정서 조절전략이 증가하여 문제 중심적이 된다. 그러나 황선희(2003)와 이지선, 유안진(1999)등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 전략 차이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의 성과 아동의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영, 2002; 한유진, 2004). 정서표현과 통제에 있어 성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서조건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여아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남아보다 이런 정서들을 표현했을 경우 타인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Zeman & Garber, 1996). 즉, 여아는 고통의 표현이 지지를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남아는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타인들의 놀림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는 정서표출 규칙이 남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서조절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서 조절에 있어서 사회적인 요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한편, 일부연구(이지선, 유안진, 1999; 황선희, 2003)에서는 정서조절전략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관계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노상황에서 또래지위, 아동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상황 특성에 따라 아동들의 사건 지각, 대처반응을 살펴본 연구(Whitesell & Harter, 1996)에서는 분노를 유발시킨 또래가 단짝 친구일 경우 우정을 지속시키려는 의지로 또래와 직접 이야기를 하는 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보통의 친구일 경우 상대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적어 관계보존 보다는 자기 보호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함께 놀이를 한다 해도 그들 간에 항상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또래들 중에서도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친밀한 또래관계를 지닌 아동이다(Parker & Asher, 1989). 대부분의 아동들은 또래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명, 또는 몇 명의 또래들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친밀한 또래관계이다. 대부분의 또래관계 친밀도의 정의를 보면 상호성을 또래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친밀한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워진다(김영란, 2000). 아동들의 친밀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정서표현, 상호관계, 공유하기 등에서 친밀하지 않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과는 다르다. 이런 관계는 아동들에게 다른 어떤 관계도 줄 수 없는 사회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관계 안에서, 아동은 친사회적 요구와 갈등

과 경쟁을 극복하는 기회를 가진다(김영란, 2000).

아동의 또래 간 친밀도에 따른 상호작용을 비교 연구한 송지영(1999)의 연구에서도 친밀집단과 비친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비친밀 집단에서 보다 친밀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친밀집단 보다 비친밀 집단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의 또래간 친밀도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초래하며 이것은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사회적 유능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또래간 친밀도는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기술과 유지하는 기술, 대인간의 문제해결의 기술에서 유능감을 가지게 하며 또래들과 상호작용 시 아동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도 또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또래간의 친밀도에 관심을 두고 정서조절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서조절연구의 대상은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두루 포함하여, 국외에서는 측정하는 상황 또한 부모나 또래 등의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부터 공격적인 영역에서의 공공행위까지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ole, Martin & Dennis, 2004). 그러나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인식능력과 정서조절의 개인차와 사회성을 관련시켜 조사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은 정서교육의 소홀로 이어진다. 즉, 초등학교조차 심한 정서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 조절하는 방법 및 대인관계 형성 기술들의 구체적인 생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또한 정서조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정서를 조절해야 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정서조절 방법을 배우고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Fabes, Eisenberg, Karbon, Carlo, Schaller, & Miller, 1991)를 살펴보면,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의 경우 아동이 속한 집단에서 적응적이고 자신과 다른 아동의 욕구의 조화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또래유능성이 높

고 교사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고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정서적, 사회적 적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외재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이나 공격성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경, 박성연, 2002; 서지영, 2003).

정서적 능력이나 전략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유능성이나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Fabes, Eisenberg, Karbon, Carlo, Schaller, & Miller, 1991)들은 정서적 능력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련한 또래변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은강, 이현정(1999)의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의 방어와 같은 부정적 정서조절행동 사용이 괴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 전체 행동문제와 관련된 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서조절행동이 많을수록 교우관계와 가족관계, 현실적응성 등의 전체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어 정서조절이 유아기뿐 만아니라 아동기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적 능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능력임을 지적하고 있다. 장정애(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지명을 받은 아동 집단이 부정적 지명을 받은 아동 집단보다 정서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희옥(2000) 역시 사회적 지원을 찾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이 또래지지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정서조절에 따라 사회적 능력이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알아본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차별화된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영역별로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은 아동의 성과 연령 및 또래관계의 친밀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서조절전략의 각 하위영역들은 사회적 능력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여, 아동의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능력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래친밀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전략과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우정이나 또래와의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보다 공식적이며 확장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보여줄 기회가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은 또래친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곳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가운데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명을 제외한 197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능력 질문지를 초등학교에 맞도록 사용한 정승민(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예;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친한 친구가 여러 명 있고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 대인적응성(예;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고 친 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사회 참여도(예;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주도성(예;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이끌며 다른 아동에게 지시를 잘 하며 아동의 그런 행동을 다른 아동들이 잘 따라 한다), 인기도(예;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이다)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각 하위요인별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어쩌다 그렇다, 2=가끔 그렇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5개 하위 요인의 신뢰도로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는 사교성 .88, 대인적응성 .87, 사회참여도 .90, 주도성 .90, 인기도 .93이었고, 전체 사회적 능력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97이었다.

2) 정서조절전략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라리(2005)의 정서조절전략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의 4가지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와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를 총 8문항의 개방형 질문지로 질문하였다.

분석은 안라리(2005)의 분석기준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요청, 문제해결, 회피, 내면화반응, 외면화반응, 비해결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뉘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사회적지원 요청과 문제해결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으로, 회피, 내면화 반응, 외면화 반응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보았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분석기준에 따라(예: 위로해준다는 문제해결) 나타났을 경우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하여 여섯 개 범주별로 0-8점의 범위를 가진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학년	성			전체
	성	남	여	
2학년	27 (13.7)	37 (18.8)	64 (32.4)	
4학년	39 (19.8)	36 (18.3)	75 (38.0)	
6학년	35 (17.7)	23 (11.7)	58 (29.4)	
전체	101 (51.3)	96 (48.7)	197(100.0)	

<표 2> 아동의 정서조절전략 분석기준

정서조절전략	내용	예
사회적지원 요청하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선생님 또는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등
문제해결	아동 스스로 문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신체적, 언어적, 물질적 전략과 실질적 도움 제공하기	위로한다. 다른 종이를 구해준다 등
회피	문제 상황을 피하기	그냥 간다. 모른척한다 등
내면화반응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해소하기	운다. 가만히 있다. 속으로 무서워한다 등
외면화반응	신체적 위협이나, 공격, 언어적 비난 등을 사용하기	때린다. 발로 찬다 등
비해결	무응답/올라요 등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도구에 대한 이해 여부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2, 4, 6학년 각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질문지에 대한 이해정도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조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2, 4,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감 및 담당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연구자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 아동들에게 질문지의 내용과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또래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조절전략의 질문지상에 아동이 생각할 때 자신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동과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응답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고 t 검증, paired t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우선 아동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면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부정적 전략보다는 문제해결이라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표 3>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정서조절전략 \ 아동의 성	남(n=101) M(SD)	여(n=96) M(SD)	t
사회적지원요청	.24 (.80)	.32 (.72)	-.14
문제해결	5.38(1.83)	5.36(1.84)	-.18
회피	.72(1.12)	.64 (.88)	.25**
내면화반응	.80(1.20)	.80 (.96)	.33
외면화반응	.64 (.80)	.88(1.04)	-1.28**
비해결	.24 (.96)	.08 (.64)	1.25***

*p<0.05; **p<0.01; ***p<0.001

여 각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원요청이나 문제해결, 내면화 반응 전략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회피, 외면화반응과 비해결 전략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타나났다. 회피전략은 여아(M=.64)보다 남아(M=.72)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t=.25, p<.01) 외면화 반응 전략은 남아(M=.64)보다 여아(M=.88)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t=-1.28, p<.01), 비해결 전략은 여아(M=.08)보다 남아(M=.24)에게서 높게 나타났고(t=1.25, p<.001). 이를 통해 여아가 남아보다 외면화반응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남자는 여아보다 회피전략과 비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학년에 따라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을 알아본 결과,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인 사회적지원요청, 문제해결과 내면화반응 전략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지원 요청하기 전략에서는 4학년(M=.06)이 2학년(M=.02)과 6학년(M=.02)보다 높았으며(F=3.91, p<.05). 문제해결 전략은 학년이 높을수록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타나났으며(F=5.21, p<.01), 내면화반응 전략은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04, p<.001). 한편 회피, 외면화반응, 비해결 전략은 아동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 간에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지원요청 전략에서는 4학년과 2학년 간에 그리고 4학년과 6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 전략에서는 모든 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내면화 반응에서도 모든 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정서조절전략	아동의 학년			F
	2학년 (n=64)	4학년 (n=75)	6학년 (n=58)	
사회적지원요청	.16 (.32)	.18 (.34)	.16 (.31)	3.91*
문제해결	5.92(4.56)	5.2(5.03)	4.88(4.98)	5.21**
회피	.40 (.71)	.76 (.88)	.80 (.97)	2.65
내면화반응	.48 (.65)	.72 (.88)	1.28(1.32)	9.04***
외면화반응	.72 (.89)	.80 (.98)	.72 (.86)	.03
비해결	.32 (.67)	.16 (.53)	.16 (.61)	1.04

*p<0.05; **p<0.01; ***p<0.001

<표 5>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의 사후검증결과

하위요인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오차	Contrast		
					집단	1	2
사회적지원요청	2	64	.16	.32	1		
	4	75	.18	.34	2	*	*
	6	58	.16	.31	3		
문제해결	2	64	5.92	4.56	1		*
	4	75	5.20	5.03	2		*
	6	58	4.88	4.98	3		
내면화반응	2	64	.48	.65	1		*
	4	75	.72	.88	2		*
	6	58	1.28	1.32	3		

* p< .05

2. 아동의 또래친밀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아동의 상호작용하는 또래의 친밀도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6>과 같이 또래 친밀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하위영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비해결을 제외한 정서조절전략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친한 친구일 경우와 친하지 않은 친구일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경우보다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경우에 아동은 사회적 지원요청하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91, p<.001),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t=5.12, p<.001), 외면화반응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29, p<.001). 한편,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경우보다 친한 친구의 경우에 아동은 문제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18, p<.001),

<표 6> 또래친밀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사용

정서조절전략	안 친한 경우		친한 경우		t 값
	M	SD	M	SD	
사회적지원요청하기	.56	1.28	.24	.40	5.91***
문제해결	4.56	2.40	6.08	1.92	-8.56***
회피	.96	1.44	.40	1.04	5.12***
내면화 반응	.56	1.04	.96	1.52	-3.73***
외면화 반응	1.20	.96	1.04	1.44	5.29***
비해결	.08	.64	.24	1.20	1.80

*p<0.05; **p<0.01; ***p<0.001

내면화반응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3, p<.001$). 비해결 전략의 사용은 친한 친구일 경우와 친하지 않은 친구에서의 사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능력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안라리 2005; 이해영, 1986; 권연희, 1995)에서 아동의 사회적능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

<표 7>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적능력

아동의 성 사회적능력	남(n=101)	여(n=96)	t
	M(SD)	M(SD)	
사교성	3.25 (.98)	3.49 (.95)	-1.80
대인적응성	3.08 (.83)	3.38 (.84)	-2.51
사회참여도	3.70(1.05)	3.96(1.03)	-1.83
주도성	2.88 (.98)	3.05 (.94)	-1.29
인기도	2.72(1.08)	2.83(1.04)	-.71
계	3.13 (.80)	3.35 (.77)	-1.97

또한, 아동의 학년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박경원, 1986)에서 아동의 사회적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나 연령에 따른 사회적능력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안라리, 2005)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사회적능력이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적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량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많아지므로 놀이시간이 줄어들고 아동간의 사회적 교류를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사회적능력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사회적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별로 학년과 성별을 추가하여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 중 문제해결 전략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5, p<.05$) 즉 정서조절전략으로 문제해결을 많이 할

<표 8> 아동의 학년에 따른 사회적능력

사회적능력	아동의 학년	2학년	4학년	6학년	F
		(N=64)	(N=75)	(N=58)	
	M	M	M		
사교성		3.59(1.20)	3.29 (.98)	3.22 (.93)	2.72
대인적응성		3.35(1.12)	3.13(1.02)	3.21 (.89)	1.17
사회참여도		4.00(1.23)	3.75(1.21)	3.79 (.99)	1.08
주도성		3.00 (.87)	2.90 (.77)	3.00 (.98)	.23
인기도		2.80 (.87)	2.70 (.88)	2.84 (.97)	.35
계		3.31(1.06)	3.15 (.99)	3.26 (.95)	.68

<표 9>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능력

정서조절전략	사회적능력 B (β)					
	사회적 지원 요청하기	문제해결	회피	내면화반응	외면화반응	비해결
학년	.23 (.03)	.52 (.15)*	-1.02(-.16)*	-.66(-.11)	-.24(-.04)	.27 (.03)*
성별	-.01(-.01)	.03 (.03)	.02 (.02)	.02 (.02)	-.01(-.01)	-.01(-.01)
	.21 (.14)	.22 (.14)	.22 (.14)	.22 (.14)*	.22 (.14)*	.22 (.14)*
R ²	.02	.04	.05	.05	.02	.02
Adjusted R ²	.01	.03	.03	.03	.01	.01
F 값	1.33	2.78*	3.08*	2.09	1.37	1.36

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피 전략도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 p < .05$). 즉 정서조절전략으로 회피를 적게 사용할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인 사회적지원 요청하기와 내면화반응, 외면화반응, 회피전략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의 성과 연령 및 또래친밀도에 따라 정서조절전략을 알아보고,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및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별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8-13세 아동 19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을 알아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외면화반응을 많이 사용하며 남아는 여아보다 회피전략과 비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여아가 적극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적합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안라리, 2005)와 일치한다. 정서조절전략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서조절에 있어서 사회적인 요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남아는 관계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려고 하지만 여아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이지선, 유안진, 1999; 황선희, 2003)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은영(2002)과 신혜정(2000)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적 비난을 사용하는 외면화 반응 전략을 더 많이 선택하고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서조절전략과 성차의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연구도구와 정서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이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내면화반응은 학년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피, 외면화반응, 비해결은 아동의 학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이 낮을수록 다른 학년보다 문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문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신체적, 언어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면화 반응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해소하는 내면화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안라리, 2005; 이혜영, 1986; 권원희, 1995)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남아와 여아의 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박경원(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학년차가 나타난 안라리(200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록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이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적 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량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많아지므로 놀이시간이 줄어들고 아동간의 사회적 교류를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또래 친밀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하위영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문제해결전략과 내면화반응의 전략은 친한 친구일 경우와 친하지 않은 친구에서 차이가 나타나,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경우보다 친한 친구의 경우에 아동은 문제해결전략, 내면화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지원 요청하기와 회피 및 외면화반응 전략의 사용은 친한 친구의 경우보다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경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해결 전략의 사용은 친한 친구일 경우와 친하지 않은 친구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아동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은 또래 친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은 친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통해 자신이 직접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거나 신체적, 물질적, 언어적 도움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며

갈등에 대해 슬퍼해주거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표현하고 해소하는 내면화반응을 통해서 우정을 지속시키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선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서 우정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나 친하지 않은 친구일 경우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문제 상황을 피해버리거나 모른척하며 오히려 신체적 위협이나 공격, 언어적 비난 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은 친한 친구일 경우와 친하지 않은 친구일 경우에 아동은 다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이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사회적능력을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인 문제해결전략과 회피전략은 사회적 능력을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전략으로 문제해결을 많이 하고 회피를 적게 할수록 사회적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지원 요청하기, 내면화반응, 외면화반응, 비해결은 사회적 능력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전략 중 문제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면 사회적 능력이 높고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선행연구(안라리,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한 긍정적 정서조절행동으로서의 문제 해결적 대처는 높은 또래 수용도와 관련된다고 한 강희연과 강문희(1999)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isenberg, Fabes, Bernzweg, Karbon, Poulin, & Hanish(1993)는 아동의 전체적인 정서조절전략은 사회적능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하였고 남아의 회피전략은 또래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 자신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 하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제해결전략은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이므로 사회적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을 피하거나 모른척하고 무시하는 회피전략은 소극적인 사회적 행동이므로 이를 적게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사회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지원 요청하기와 내면화, 외면화 반응은 사회적 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회적 지원 요청하기는 아동 자신이 직접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내면화반응 전략도 문제를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감정을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것으로 울거나 속으로 무서워하는 등의 행동이므로 사회적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외면화반응은 신체적 위협이나, 공격, 언어적 비난 등을 사용하는 것인데 확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언어보다 사회화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외면화반응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해결은 무응답이거나 모른다는 응답이므로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문항이나 사회적능력에 관한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인지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을 또래 친밀도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또한 친밀도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연구는 정서조절이 필요한 상대와의 관계 및 내적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도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영역에 따라 차별화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 조사 실시기간이 1학기 초였으므로 또래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기에는 이른 시기일 수도 있다. 좀 더 정확한 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친밀도가 안정적인 2학기에 측정하여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자기보고식만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또래와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능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교사와의 평정 및 또래 평정을 통한 사회적 능력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을 개방형질문지로 하여 알아보았으나 추후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질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친한 친구일 경우와 친하지 않은 친구 일 경우 나올 수 있는 응답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두 경우에 적합한 정서조절전략척도를 추후 연구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내용은 아동의 정서발달의 중요성과 정서조절전략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프로그램개발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또래친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기관이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서조절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또래친밀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고 있다.

주제어 : 정서조절전략, 사회적 능력, 또래친밀도

참 고 문 헌

- 강대진(1996).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국
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연, 강문희(1999).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려성이 유아
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고인숙(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중
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진(2004).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놀이
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
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영란(2000). 유아의 또래관계 친밀도에 따른 놀이개입 시
도전략과 집단의 반응.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남궁선(1997). 부정적 정서의 조절 전략 발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하영,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
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
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과 사회적 유능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남아의 정서
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서은혜(2005).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양식 및 사회성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라(1994). 유아들의 화내는 원인 및 화내는 유형 연구
- 유치원 자유놀이 시간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정(200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정서
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
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안라리(2004).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
의 정서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종국(1998). 분노 조절 program이 정서장애 청소년들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 위영희(2004). 유아의 정서능력과 또래유능성.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윤석빈(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 사건에 따른
정서 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윤혜정(1995). 아동의 정서 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복자(1997). 아동의 정서 표현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 -분노와 슬픔을 중심으로-. 연
세대학교 대학원.
- 이옥임(1996). 아동의 화 정서 이해 및 화 정서 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영(2002). 과제 상황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정서대처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일(1998). 체험 정서와 표현 정서의 심리적 효과.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
조절 동기와 정서 조절 전략.
- 이지은(1997).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아
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
교.
-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아동의 정서 조절 능
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전옥(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장정애(1998). 초등학교의 감성지능과 학업성취, 학교적응,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지연(2001). 유아의 또래간 친밀도가 상호주관성에 미치
는 영향-문제 해결과제 수행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민(2005).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사
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윤, 김광운(2002).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자녀 또래

- 관계 개입행동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센터.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순옥(1998). 정서교육활동이 만 3세 유아의 자기 정서 인식 및 정서 조절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원경(1995).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아동의 개입 전략.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윤(1994). 정서와 정서 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유진, 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현은강,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9.
- 홍애경(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 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 홍지연(2002). 또래지위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조절.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황선희(2003). 유아의 대처능력에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73-205.
- Band, E. B., & Weize,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 on coping with ever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47-253.
- Cole, P. H., Martin, S. E., & Dennis, T. A.(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333.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arner, P. W. (1995). Toddlers'emotion regulation behaviors : The role of social context and family expressivenes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4), 417-431.
- Fabes, R., Eisenberg, N., Karbon, M., Carlo, G., Schaller, M., & Miller, P.A.(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 Hartup, W. W.(1991). *Hav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keeping friends: Relationship as educational contexts*. In Resources in education(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5-854).
- Parker, J., & Asher, S. R.(1989).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Thompson, R. (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Whitesell, N. R. & Harter, S. (1996).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emotion: Anger with close friends and classmates. *Child Development*, 67, 1345-1359.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3-849.
- Zeman, J. & Shipman, K. (1997). Social-contextual influences on expectancies for managing anger and sadness: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9), 917-924.
- Zeman, J. & Shipman, K. (1998). Influence of social context on children's affect regulation: A functionalist perspectiv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2, 141-165.

(2008. 11. 20 접수; 2009. 2. 10 채택)